

7/10/22

설교 제목: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 복음 4 장 43-54 절

- (요 4:43)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 (요 4: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 (요 4: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절관주** 마 13:57, 막 6:4, 눅 4:24
- (요 4: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 (요 4: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 (요 4: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 (요 4: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 (요 4: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 (요 4: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 (요 4: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 (요 4: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절관주** 행 16:34
- (요 4: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8 개 표적(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중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 이 8 개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는 이책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요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들을 머무시며 복음을 전하신 후 고향인 갈릴리 지역을 향해 가십니다. 본래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다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에 들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4:43)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요 4: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 소상히 알고 있는터라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굳이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환영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같은 자세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땅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예수님의 이같은 자세는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끈기있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라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요 4: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 즉 표적과 기사 등을 보지 않고 여인의 간증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면 갈릴리 사람들처럼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행해서라도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했던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요 4: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요 4: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약 35 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낫기는 커녕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급기야 아들은 죽음을 코 앞에 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건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의 신하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 달라고 애걸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절망에 빠져 예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은 아이너리컬하게도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그렇지라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사람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라도 예수님을 찾는 것은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꾸짖으십니다.

(요 4: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려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갑자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꾸짖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은 믿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주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모여 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었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 모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낼지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지켜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는’이라고 단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희는’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셔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의 말씀 보다는 당신의 능력과 힘, 권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을 것을 종용하십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왕의 신하는 마음이 조급하기만 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야 아들을 살릴 수 있을텐데.....

지체하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요 4: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아들의 상태가 이미 일반적인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땅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소망이 끊어져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소망없는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재촉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아들이 살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 예수님을 재촉했던 모습과는 달리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이에게로 돌아갑니다.

(요 4: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함께 집으로 가서 아들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실망할 수도 있었습시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습시다만 그는 표적만을 바라던 주위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표적을 보아야만 믿습시다.

말씀보다는 신비한 현상을 추구습시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기적을 보지 못할지라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던 왕의 신하는 때마침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자신을 만나러 오는 자신의 종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부터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요 4: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요 4: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요 4: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고 선포하신 그 시간임을 확인한 후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말을 전해들은 집안 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 4: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은 믿음의 결과로 이어졌기에 단순한 이적(miracles)이 아니라 표적(signs)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도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해 보여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예수님께서서는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미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표적도 보지 아니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믿었습니다.

반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표적을 본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시면서도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 20: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기 어렵다면 보고서라도 믿어야 합니다.

2 천년 전에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